북 주민 파고든 휴대폰 문화…

첨단 기기 개혁·개방의 촉매제 될까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북한은 올 새해맞이 행사를 떠들썩하게 진행했다. 평양 김일성광장 일원에서 열린 신년 경축공연에는 축포 발사와 화려한 조명 등이 어우러졌고 모란봉악단의 가수와 무용수가 등장한 공연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해 12월 31일 밤 11시부터 행사 장면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보신각 타종 등 관련 행사를 중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조처를 한 우리와 달랐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확진자=0명'이라며 사실상 세계 유일의 코로나 청정국가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며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해왔다. 그런데 광장에 많은 사람을 운집시켜 놓고 신년 경축공연을 치르는 건 좀 생뚱맞아 보인다.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이어 올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 맞춰 개최한 열병식에 군인과 평양 주민 등을 한 자리에 모아 행사를 치른 것도 마찬가지다. 북한 체제의 필요에 따라 주민 동원이 이뤄지다 보니 고무줄 늘이듯 하며 방역 원칙을 무너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 북한 매체가 전하는 신년 경축공연이나 각종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이 휴대전화로 관련 움직임을 촬영하거나 서로 기념사진을 찍어주는 경우, 또는 셀카로 자신의 모습을 담는 광경이다. 평양의 경우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전송하는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특권 세력이나 부유층만 즐기는 게 아니라 이젠 일반 주민들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화는 물론 사진촬영이나 문자 전송, 게임 등을 즐기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최근 북한의 휴대전화 개통 규모나 이를 통한 수익구조 등은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집트 통신사인 오라스콤과 합작 등의 방식으로 휴대전화 시스템을 운용하던 북한이 이집트와의 견해차로 투자 수익금의 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북한 자체의 회사를 설립하는 등 전횡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약 580만 대의 휴대전화가 보급된 것으로 우리 대북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오라스콤의 자료나 관련 첩보를 종합한 결과다. 보통 한 사람당 한 대의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2500만 북한 인구의 상당수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장마당에서 유통이나 도소매업을 장악한 큰손을 의미하는 '돈주'들의 경우 한 사람이 2~3대를 보유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주민들의 일상 속으로 휴대전화가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관련 법제 제정 움직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이동통신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 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이동통신망의 현대적인 완비, 이동통신의 다종화·다양화의 실현, 이동통신 봉사와 이용, 이동통신 설비의 등록 등에 대한 사항들이 규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휴대전화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 등을 규율하는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건 휴대전화 보급이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든 것은 물론 관련 문화가 주민의 일상으로 파고들었음을 확인케 한다.

이는 휴대전화 개통을 허용해놓고도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각 철회하거나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던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2008년 오라스콤과 합작으로 체신성 산하에 전담업체인 고려링크를 설립하면서 휴대전화를 본격 도입한 북한은 최근에는 '강성망'과 '별'이라는 단독회사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휴대전화 개통에는 보통 300달러 정도의 가입비가 드는데, 580만 대를 기준으로 잡아도 모두 17억4000만 달러(우리 돈 기준 1조9200억 원 수준)를 북한 당국이 챙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민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측면과 아울러 북한 당국의 재정 수지 등을 고려할 때 이젠 돌이키거나 철회할 수 없는 존재감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일본경제연구센터가 공개한 '북한에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 도래'라는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물을 즐기거나 제한적이지만 배달 앱까지 이용하고 있다는 조사 내용이 실려 있다. 중국 등의 게임물뿐만 아니라 한국이 만든 세계적 수준의 게임도 암암리에 이용되는 데, '태권도 강자 대결' 같은 자체 개발 아이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을 주문할 수 있는데, 옥류(인민봉사총국), 상연(상업과학연구소), 만물상(연풍상업정보기술사), 은파산(조선은파산정보기술교류소) 등의 업체가 가동 중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상업 사이트인 만물상의 경우 하루 접속 건수가 7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스마트폰의 판매는 2012년을 전후해 시작됐다. 2013년에 출시된 '아리랑 1201(판매가 약 500달러)'을 계기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북한에서 판매·유통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아리랑과 평양, 진달래, 푸른하늘, 길동무 등 모두 5종류에 이른다.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북한의 통신업체 '고려링크'의 가입자 숫자는 70만 명에서 240만 명까지 급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북한 관영 매체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예의범절이나 매너를 강조하는 캠페인까지 등장했다. 조선중앙TV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자극적인 벨 소리를 피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TV는 "우리의 감정과 미감에 맞게 고상한 것으로 호출음을 선택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벨 소리와 관련한 교양 있는 대처를 주문했다. 노동신문은 '주목되는 교내에서의 손전화기 사용금지 조치'라는 기사를 실었는데, 프랑스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밤하늘에 폭죽이 터지며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이 검은 털모자를 쓴 채 웃음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평양시에서 열린 군민연합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형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손전화기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가시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북한 사회에서도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색정물'이라 불리는 성인물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면서 "불건전한 사상을 주입하며 퇴폐적이고 반동적인 사상을 유포하는 주범"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사실 휴대전화의 폭발적인 증가세에 북한 당국은 한때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08년 지금과 같은 3G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가 시작돼 2012년 2월 100만 대를 돌파했고, 2013년 5월 200만 대를 넘어섰다. 2015년 말에는 국가정보원이 370만 대 보급 수준이란 점을 공개한 바 있다.

북한에서 휴대전화가 처음 등장한 건 2002년이다. 태국 업체인 록슬리 퍼시픽의 이동통신사업자인 선넷(Sunnet)이 2만 명 정도에 제한적으로 2G폰 서비스를 제공한 게 시초다. 당시 휴대전화는 권력과 부(富)의 상징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4년 4월 평북 용천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북한 당국은 휴대전화 공급과 이용을 중단했다. 폭발을 원격조종하는데 휴대전화가 사용됐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휴대전화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이를 이용한 모바일 상거래가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최근 북한 매체들은 주민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물건을 사거나 주문·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거래 시스템인 '옥류'가 가동 중이란 점을 부각 선전하고 있다. 모바일 거래가 가능한 '옥류'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 뒤, 지불카드인 '나래'(날개)로 계산하는 등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평양 금성식료공장의 단팥빵은 한 개에 78원 40전에 팔고, 해당화관에서는 오렌지 주스나 우유·초콜릿을 휴대전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물론 전자결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건 아니지만, 휴대폰이 북한 주민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음을 잘 보여준다.

북한의 휴대전화는 한류 드라마와 가요 등을 전파시키는 통로 역할도 한다. 북한은 휴대전화와 컴퓨터가 인터넷과 차단돼 있다. 외부 정보를 접하는 건 불가능하고 규정된 심(SIM) 카드를 꽂아 내부망인 인트라넷에만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제한 속에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보의 유통이나 동영상·드라마·가요 등이 번지고 있다. 주로 마이크로 SD카드 같은 저장 매체를 통해서다. 특히 한류 문화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례가 은밀하게 늘어난다는 탈북자들의 전언이 있다.

주목되는 점은 이런 휴대전화 일상화가 북한 체제의 유지나 개혁·개방,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까지 북한 당국이 휴대전화의 보급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통제를 하고 있고, 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휴대전화가 다른 국가나 체제와 달리 인터넷에 연결돼있지 않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화 기능을 기본으로 메시지 소통이나 사진촬영, 게임 등의 휴대전화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인터넷을 연결할 수 없다는 점은 스마트폰의 효용을 반감시킨다. 북한 당국이 70년 노동당 독재체제를 운용해 오면서 철저한 감시체계를 촘촘하게 갖추고 있다는 점도 휴대전화 보급이 체제 위해요소로 부상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 체제의 등장은 개혁·개방이나 자본주의적 요소를 결합한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다. 엘리트와 주민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그 가능성에 주목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부터 평양에 고층빌딩과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 뉴타운 형태의 개발 사업을 착수했다. 평양 중심구역의 대동강변 등에는 53층 주상복합 건물과 46층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만든 이래 20여 개의 개발구를 만들었다. 북한이 경제개발구를 "다른 나라의 투자를 끌어들여 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특구"라고 강조하면서 외자유치를 통한 개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미국의 대북투자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평양과 뉴욕 맨해튼과의 합성어인 '평해튼(Pyonghattan)'이란 말까지 나왔다. 당시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북한 당국자에게 '평양에 성조기를 단 캐딜락 차량과 미국인이 줄지어 다녀도 문제없겠느냐'라고 타진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6월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에서 보여준 경제 관련 관심과 행보도 눈길을 끌었다.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둔 상황 속에서 싱가포르 사업시설과 야경을 돌아본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 "오늘 참관을 통해 싱가포르의 경제적 잠재력과 발전상을 잘 알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귀국(싱가포르)의 훌륭한 지식과 경험을 많이 배우려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언급과 개혁·개방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실망감으로 회담 판을 접어버린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고,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모멘텀을 상실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리뷰 결과를 숨죽이며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10년 전 김정은 위원장 체제의 등장에 대한 기대는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젊은 나이인데다 감수성이 예민할 어린 시절 서방 유학을 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김일성·김정일 시기와는 다른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변화와 개혁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실망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도 예전과 같은 핵 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회귀하기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 시대 들어 선보인 많은 개혁적 조치나 정책 중에 휴대전화 보급과 문화정착은 거의 외풍을 받지 않고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휴대전화가 체제에 위협적 요소가 될 것이란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서 주민 일상생활 속에 뿌리를 내린 휴대전화가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국방

수해 복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한 북한의 신축 건물. 연합뉴스

북한 제8차 당 대회 경축 행사인 '당을 노래하노라' 공연 모습. 연합뉴스